

경단녀 지원금 반대 등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불만 토로

서울시, 시정의견 청구 민원에 “올 출산·육아 경단녀 지원강화 자녀가점 신설 등 취지 명확화” “공중화장실 몰카 불안” 민원엔 “칸막이 시설개선 추진중” 답변



‘우먼업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서울시

경단녀 구직 지원금 반대, 화장실 몰카 불안 등 서울시가 ‘여성안심특별시’를 표방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는 청구에 일부 남성들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민원인 A씨는 “내 피 같은 돈, 누구 맘대로 놓고 있는 여성들에게 퍼주냐”면서 “돈이 그렇게 남아들면 제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좀 쓰라”고 시의 여성 구직 지원금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놓고 있는데 돈을 준다? 요즘 세상에 경력단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면서 “대체 언제까지 여성, 여성 할 거냐.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세금, 제대로 해명해주길 바란다. 얼토당토않은 답변이면 제대로 해명할 때까지 움직일 거

다. 어디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놔다.

현재 서울시는 경력 보유 여성들의 경제 활동 복귀를 돕는 ‘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본 프로젝트는 ▲구직활동에 사용토록 3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서울시 생활임금(시급 1만1436원)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우먼업 인턴십’ ▲인턴십 참가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1년 이상 계약한 기업에 300만원(1회)을 지급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은 “구직 지원금 수혜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금년도부터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 가점을 신설하는 등 사업 취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경단녀 지원금 반대 목소리뿐만 아니라, 구직 지원금 지급 대상에 왜 3040 남

성들이 포함돼 있지 않냐고 따지는 민원도 시에 접수됐다.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근거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 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쪽에서 남성들이 서울시의 경단녀 지원 사업이 불공평하며 항의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하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을 때, 여성들은 불법촬영이 두려워 화장실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서울 거주 여성 B씨는 “공원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 그림자가 보이면서 카메라 소리가 나서 너무 당황해 소리 지르며 나왔다”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짹짹해서 이것

저것 좀 찾아보다 보다가 안심 칸막이 높이 설치 기준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됐다고 나와 있는 글을 봤다. 요즘 불법촬영 때문에 안심화장실 등 신경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칸막이 설치도 조금 서둘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 사이 거리를 5mm 이하로 좁혀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일반 휴대폰 두께가 7mm 정도인 점을 감안해 카메라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법령 개정 이전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자치구 등 시설 관리기관에서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자치구 등 관리부서를 독려하고 협조 요청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저층 주거지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 개선안 마련 유지·용도지역 변화에 관리방향 제시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기 위해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재검토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종 전용·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시내 전체 주거지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해 있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용역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정비를 방해하는 제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우선 시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 주거 지역의 층수·높이 제한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고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전용 주거 지역의 특성을 조사해 유지 또는 용도지역 조

정 여부를 점검하고,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는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전용 주거 지역 내 비주거 시설 증가, 도로·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 환경이 점차 악화돼 용도 지역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의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은 좁은 골목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이 대다수다”면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차량 진출입이 어려워 화재에 취약하며 주민 편의시설도 부족해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저소득층 초·중·고생 13만명에 ‘교육급여’

서울시, 22일까지 집중신청 기간



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3만여 명이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000여 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교육활동

지원비) 단가가 초·중·고교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초등학교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연내 아파트 3만8000호 공급

내년엔 4만8000호, 2년간 8만6000호 늘어날 수 있다.

연내 서울에 아파트 약 3만8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 관계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8000호를 포함 앞으로 2년간 총 8만6000호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전망치는 작년 11월 시가 예측한 물량(2만5000호)보다 1만3000호가

시 관계자는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1만2032호) 아파트가 입주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는 등 일부 단지의 일정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내놓았던 예측 물량과 다소 차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4~2025년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 전망은 이달 4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이 입주 전망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치 ▲총 세대수 ▲임대·분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년·월) ▲아파트 단지명을 스프레드시트(엑셀파일) 형태로도 제공한다.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주택→주택·건축자료실→주택통계정보’ 메뉴를 차례로 클릭해 내려받으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 동안 민간 기관이 과소 산정해 내놓은 입주 전망 정보가 마치 사실인 듯 공유되면서 시민과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제 모집공고 등을 반영한 ‘아파트 입주 전망’ 자료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59 | 해질 / 18:29

3월 4일 (월) 음력 : 1월 24일

수도권 날씨 -2 ~ -10℃

운동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빨래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세차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외출 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바탕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6/9, 동두천 -4/10, 가평 -5/10, 파주 -6/9, 서울 -2/10, 양평 -3/10, 인천 -2/8, 수원 -1/9, 용인 -1/9, 평택 -4/10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미국 “가자 휴전협상, 하마스 서명만 남아”
▲ ‘슈퍼 화요일’ 앞둔 트럼프, 아이다호·미주리 싹쓸이 /사진 뉴스스

▲ 흥해서 후티 공격받은 화물선 침몰... 생태계 피해 우려
▲ 美겔럽, “기혼자 행복지수 결혼 안 한 사람보다 높다”



▲ 러, “핀란드·스웨덴 NATO 가입 대응... 무기 추가 배치” /사진 뉴스스
▲ 크림반도 항구 인근서 폭발... “다리 폐쇄”